

혼돈의 美 대선판...아시아 금융시장 요동

주요국가 증시 1% 이상 하락

무역 의존 높은 신흥시장 기피

달러·원화 약세...엔화 103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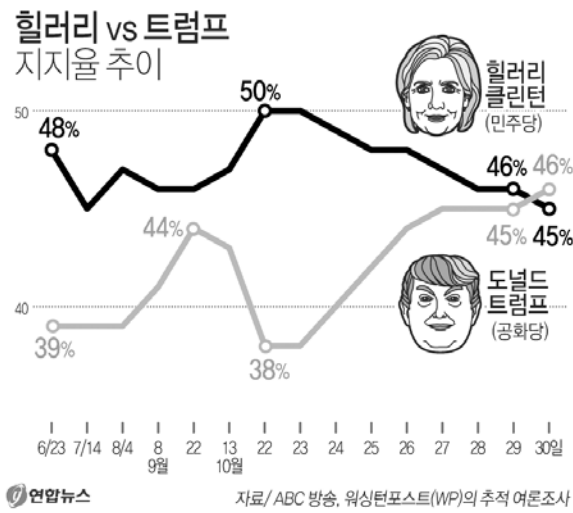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승리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아시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2일 오전 장중 1% 이상 떨어졌고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약세와 안전자산 선호 움직임으로 엔화 환율이 달러당 103엔대로 내려앉았다.

이날 오전 11시 16분 일본 도쿄 증시의 닛케이평균주가 지수는 전날 증가보다 1.56% 떨어진 17,169.73에 거래되고 있다. 토픽스 지수는 1.72% 내린 1,369.20였다.

홍콩 항생지수는 1.34% 하락한 22,836.99를, 항생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는 1.85% 빠진 9,526.55를 나타냈다. 한국 코스피도 1.27% 하락한 1,981.92에, 코스닥 지수는 2.03% 내린 613.67에 거래되고 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각각 0.24%, 0.06% 내렸다.

이는 미국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아시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자료/ABC 방송, 워싱턴포스트(WP)의 추적 여론조사

점에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확 좁혀지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겁에 질린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릭 스프너 CMC 마켓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다음 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투자자가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항상 그래 왔던 일"이라면서도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심스러움이 신경과민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2일 오전 11시 40분에는 1,204.62에 거래되고 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ICE 달러지수도 전날보다 0.7% 빠진 97.7270을 보이면서 6주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다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12월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스프너 애널리스트는 "만약 트럼프가 당선돼서 불확실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이 커진다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12월에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화 환율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현재 달러당 103.67엔까지 떨어지며 하루 사이에 0.42%, 이를 사이에 1.06%가 빠졌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엔화로 자금이 몰렸기 때문이다.

위안화 절하 행진을 이어가던 중국 당국도 절상으로 돌아섰다. 인민은행 산하 외환은행은 이날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날보다 0.25% 내린 달러당 6.7562위안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위안화 환율은 지난달 21일(달러당 6.7558위안)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위안화 환율을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위안화 가치를 절상했다는 의미다.

같은 시각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6.7737위안을 보였다. 역내에서는 위안화 환율이 소폭 내린 달러당 6.7645위안으로 거래되고 있다.

한편 원화 환율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약세를 돌아서면서 오전 11시 34분 현재 달러당 1,152.18원까지 올랐다. 원화 환율이 장중 1% 이상 뚝 떨어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美 언론 "북한, 3일 내 무수단 발사"

미국 정부 관리 인용 보도

북한이 1~3일 이내에 '무수단'(북한 명 화성-10호)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정보분석 관련 업무에 정통한 미국 정부 관리 2명"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관리들이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만약 북한이 실제로 발사에 나선다면 올해 들어 9번째로 이뤄지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된다. 지난 4월부터 이뤄진 이전 8번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시도 가운데 지난 6월 22일에 이뤄졌던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실패했다.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0km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 추정치 만큼의 위력을 발휘한다면 광 미군기지도 사정권에 두게 된다.

북한은 옛 소련이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에 걸쳐 개발한 R-27(SS-N-6)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바탕으로 1990년대 말부터 무수단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고 2005년을 전후해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수단 미사일은 2007년 실전 배치됐지만, 북한은 그 전에 이렇다할 비행시험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북한은 두 번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계속 시도할 가능성은 이미 제기돼 왔다.

독일 첨단기술 분석전문업체 ST에널리티스의 마커스 실러 박사는 최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엔진 개량을 위해"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무수단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적어도 5년 이상 더 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사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이 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은 물론 개발 중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도 무수단 미사일을 개조해 만든 만큼, 거듭된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통해 KN-08이나 SLBM 기술도 함께 축적하려는 시도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다른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된 행위다.

폭스뉴스의 북한 미사일 발사 보도는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 원자력잠수함 '펜실베이니아'(SSBN-735)호가 전날 광 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진 뒤에 나왔다. 이 잠수함에는 '트라이던트 D-5' ICBM을 24발까지 장착할 수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 불투명

일본 언론 "최순실 사태 변수"

올해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도쿄(東京)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의 개최를 위해 한국과 중국 정부와 접촉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신문은 북수의 한중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지난 9월 하순 한국과 중국 정부에 12월 3~4일 도쿄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측의 제안 이후 한달 이상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남중국해에 대한 일본측의 대응을 (끝까지) 확인하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개최를 기대하면서도 "이를 위해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지 기대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측의 제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한국의 경우도 최순실 사태가 변수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만일 탄핵 사태가 발생하면 박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소개했다.



베트남 노래방 화재...13명 사망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한 노래방에서 지난 1일 밤 화재가 발생해 13명이 숨졌다고 베트남 국영 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화재는 하노이에 있는 8층 짜리 노래방에서 시작된 뒤 식당과 또 다른 노래방이 입주해 있는 인근 건물로 빠르게 번져 피해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말레이시아도 중국과 경제·군사협력 확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외교 중심 축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필리핀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미국을 제치고 중국과 경제·군사적 협력 확대에 나서면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 동남아 외교무대에서 미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그동안 아세안 10개 회원국 가운데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친중 국가로 분류됐다. 나머지 회원국은 친미 또는 중립적 성향을 보여왔다. 필리핀은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지만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과 함께 친중으로 돌아섰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정상들이 중국 중시정책을 선언한 것은 자신들이 처한 국내외 정치적 역풍과 관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집 총리는 말레이시아 경제개발을 위해 설립한 국부펀드 1MDB의 자금 수십억 달러를 측근들과 함께 횡령했다는 의혹이 작년부터 불거지면서 야권과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등 정치 인생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현재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사법당국이 자국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관련된 나집 총리의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나집 총리는 의혹을 부인하지만,

미국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치 생명에 위협을 느낀 나집 총리와 미국의 관계가 틀어지자 중국이 이 틈을 파고든 것이다. 나집 총리로서는 저유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말레이시아 경기를 살리는데 중국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정치적 위기 탈출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달 20일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는 봄날"이라고 말했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양 국민은 형제"라고 화답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방중 기간에 미국과 경제·군사적 결별을 선언했다. 이에 미국이 전의를 과약하기 위해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필리핀에 급파하기도 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이 국제중재를 제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을 이겼지만, 판결 이행을 압박하기보다 대화를 선택했다.

필리핀에 이은 말레이시아의 친중 행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경제·군사적 패권 확장을 견제하려는 미국을 더 당혹스럽게 할 것으로 보인다.

중개
법인
한국토지경매
☎ 대표 1522·3396

<p>경매 골프장</p> <p>감정가 39억8천만, 최저가 39억8천만 광양시 봉강면 / 9홀 / 대지 9673평 건물 232평</p>	<p>경매 수익형 빌딩</p> <p>감정가 24억3천만, 최저가 17억 순천시 풍덕동 / 10층 총54호 / 대지 106평 건물 690평</p>	<p>경매</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골프연습장</td> <td style="width: 25%;">감정가 110억, 최저가 110억</td> <td style="width: 25%;"></td> </tr> <tr> <td>광양시 성황동 / 지하3층 지상3층 / 대지 3935평 건물 2667평 / 자연녹지지역 / 50타석 12룸</td> <td></td> <td></td> </tr> <tr> <td>가스충전소</td> <td>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8억 9천만</td> <td></td> </tr> <tr> <td>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점 / 자동세차기 / 3기 6구</td> <td></td> <td></td> </tr> <tr> <td>고급팬션 및 전원주택 부지</td> <td>감정가 7억 1천만, 최저가 5억</td> <td></td> </tr> <tr> <td>해남 화원면 / 임야 4691평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해안도로점 / 해변 전망</td> <td></td> <td></td> </tr> <tr> <td>숙박시설 부지</td> <td>감정가 6억, 최저가 4억 2천만</td> <td></td> </tr> <tr> <td>구례군 산동면 / 대지 1013평 / 계획관리지역 / 코너 12m도로점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소재</td> <td></td> <td></td> </tr> <tr> <td>전통한옥식 전원주택</td> <td>감정가 3억 6천만, 최저가 2억</td> <td></td> </tr> <tr> <td>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점 / 보성강 전망</td> <td></td> <td></td> </tr> </table>	골프연습장	감정가 110억, 최저가 110억		광양시 성황동 / 지하3층 지상3층 / 대지 3935평 건물 2667평 / 자연녹지지역 / 50타석 12룸			가스충전소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8억 9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점 / 자동세차기 / 3기 6구			고급팬션 및 전원주택 부지	감정가 7억 1천만, 최저가 5억		해남 화원면 / 임야 4691평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해안도로점 / 해변 전망			숙박시설 부지	감정가 6억, 최저가 4억 2천만		구례군 산동면 / 대지 1013평 / 계획관리지역 / 코너 12m도로점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소재			전통한옥식 전원주택	감정가 3억 6천만, 최저가 2억		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점 / 보성강 전망		
골프연습장	감정가 110억, 최저가 110억																															
광양시 성황동 / 지하3층 지상3층 / 대지 3935평 건물 2667평 / 자연녹지지역 / 50타석 12룸																																
가스충전소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8억 9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점 / 자동세차기 / 3기 6구																																
고급팬션 및 전원주택 부지	감정가 7억 1천만, 최저가 5억																															
해남 화원면 / 임야 4691평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해안도로점 / 해변 전망																																
숙박시설 부지	감정가 6억, 최저가 4억 2천만																															
구례군 산동면 / 대지 1013평 / 계획관리지역 / 코너 12m도로점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소재																																
전통한옥식 전원주택	감정가 3억 6천만, 최저가 2억																															
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점 / 보성강 전망																																
<p>매매 오피스텔</p> <p>매매가 40억 학동 / 8층 / 대지 133평 건물 577평</p>	<p>매매 상가건물</p> <p>매매가 14억5천만 월계동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p>	<p>매매</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상가</td> <td style="width: 25%;">매매가 17억</td> <td style="width: 25%;"></td> </tr> <tr> <td>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영업중</td> <td></td> <td></td> </tr> <tr> <td>전원주택</td> <td>매매가 13억</td> <td></td> </tr> <tr> <td>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td> <td></td> <td></td> </tr> <tr> <td>숙박시설 부지</td> <td>매매가 8억 5천만</td> <td></td> </tr> <tr> <td>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td> <td></td> <td></td> </tr> <tr> <td>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td> <td>매매가 5억 5천만</td> <td></td> </tr> <tr> <td>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td> <td></td> <td></td> </tr> <tr> <td>계곡 산장</td> <td>매매가 3억 5천만</td> <td></td> </tr> <tr> <td>고창군 고수면 / 대지 300평 건물 65평 / 보전관리지역 / 원두막 10개, 평상 10개 / 하천독점사용</td> <td></td> <td></td> </tr> </table>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영업중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계곡 산장	매매가 3억 5천만		고창군 고수면 / 대지 300평 건물 65평 / 보전관리지역 / 원두막 10개, 평상 10개 / 하천독점사용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영업중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계곡 산장	매매가 3억 5천만																															
고창군 고수면 / 대지 300평 건물 65평 / 보전관리지역 / 원두막 10개, 평상 10개 / 하천독점사용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6772-1114 김주성**